

女性誌를 통해 본 근대 일본 신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

- 大正期 『主婦之友』를 중심으로 -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目次>

- | | |
|----------------------|-----------------------|
| 1. 서론 | 3.2 직업부인에 대한 인식 |
| 1.1 연구 목적 | 4. 『主婦之友』에 나타난 신여성 복식 |
| 1.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내용 | 4.1 의복 |
| 2. 『主婦之友』의 간행배경 및 성격 | 4.2 화장과 머리스타일 |
| 3. 『主婦之友』에 나타난 여성인식 | 5. 결론 |
| 3.1 주부에 대한 인식 | |

主題語: 여성지(Female Magazine), 신여성(Modern girl), 주부지우(Housewife's Friend), 다이쇼시대(Taishō era), 여성복식(Women's Fashion)

1. 서론

1.1 연구 목적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은 도시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잡지는 이러한 도시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도시문화의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신여성, 모던걸 등의 이름으로 근대 도시문화의 유행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양산과 하이힐로 멋을 낸 동경의 여성들은 근대 도시문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의 향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여성잡지는 도시문화를 통해 변화하는 생활과 새로운 여성에 대한 다양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723)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기사를 통해 생활과 꾸밈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당시 알리고 이것을 유행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식을 표출하는 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 볼 수 있다.

근대의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유산과 여성이 맺는 복잡한 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근대 여성의 체험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험을 밝히는 근거로서 여성잡지는 시대의 많은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잡지에 나타나 여성의 인식과 주부의 인식에 대한 당시의 요구를 통해 근대적 표상인 신여성의 변용된 복식의 원인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용한 서구문화의 변용 양상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主婦之友』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행되었던 본격적인 여성잡지로 독자의 중심이 중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으므로 당시 여성 의생활의 변천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에 나타난 복식양상은 당시 최신유행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여성의 복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근대 일본 여성의 유행 복식과 같은 시기 서양 여성의 유행복식을 비교해 변용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서양패션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동아시아 근대 패션의 흐름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1.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내용

근대문화의 일상화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주로 1920년대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1923년 관동대지진의 복구에 의한 도시구조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도시구조의 변화는 생활과 소비패턴의 변화 및 복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主婦之友』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를 보면, 이시다(石田, 2001))는 「일본의 1930-1940년대 화장품 광고를 통해 본 여성미의 변천 연구」¹⁾에서 『主婦之友』의 화장품에 표현된 여성미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이시다는 당시 여성들에게 있어 화장품은 건강미를 소구하는 시대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지만 전시에라도 건강한 아름다움과 젊음을 강조하였음을 볼 때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여성에 관한 연구로는 주로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조혜현(2003)²⁾은 「한·일 근대 신여성에 비교연구」에서

1) 石田あゆ(2004) 「1931-1945年化粧品廣告にみる女性美の變遷」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5, 일본마스・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會

2) 조혜현(2003) 「한일근대 「신여성」 비교 연구 : 여성지 『新女子』와 『靑踏』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국의 두 여성지 『신여자』와 『청탐』을 통해 신여성의 사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여성운동이 전개되어 가는 양상을 두 여성지와 그 창간자를 중심으로 고찰했고, 落合惠美子(2003)³⁾는 「일본 여성잡지로 보는 여성의 표상」에서는 젠더에 관한 개념을 언급했다. 근대 일본 여성 의복의 양장화에 관해서는 박미애(1994)⁴⁾의 「개화기 일본 의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의 개화기인 메이지기에 한정된 것으로 개화기 이후 여성복식의 서양화와 변용 형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다이쇼(大正)기 창간된 여성잡지인 『主婦之友』를 중심으로 하여 간행배경을 정리 분석하고, 『主婦之友』의 창간동기와 성격을 분석하여 여성잡지의 편집 방향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여성잡지의 성격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主婦之友』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 신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가정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의 시기적인 변화를 고찰한다.

셋째, 당시 잡지에 나타난 의복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나타난 신여성의 복식을 의복, 화장과 머리스타일로 나누어 변화된 여성의 인식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 『主婦之友』의 간행배경 및 성격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여성의 사회참여나 이들의 생각을 담아 대중에게 전파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당시 발간된 잡지들이었다. 당시 여성지(女性誌)들은 근대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사회적, 정신적 자각을 일깨워 주었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전통과 근대화를 조화시켜 내외의 사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던 매체였으며, 특히 도시의 주부들에게 폭넓은 세상과의 통로가 되었다.

메이지기 나타난 초기 여성잡지는 계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계몽적인 성격은 191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婦人畫報(1905)』 『婦人之友(1908)』 『婦人公論(1916)』 등의 잡지는 대부분 상류가정을 대상으로 한 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잡지였다.

3) 落合惠美子(2005) 「일본 여성잡지로 보는 여성의 표상-젠더와 섹슈얼리티의 戰後 체제」 『미술사논단』 제20호, 한국미술연구소

4) 박미애(1994) 「개화기 일본의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20년대 일본의 여성잡지는 가정과 여성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통해 생활과 꾸밈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당시 여성들에게 알리고 이것을 유행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의식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1917년 창간된 『主婦之友』⁵⁾는 창업자인 이시카와 다케미(石川武美)⁶⁾에 의해 가사와 육아에 고민하는 교양이 낮은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발간하였다. 당시 부인잡지의 잡지명은 『부인세계(夫人世界)』, 『부녀계(婦女界)』, 『부인의 벗(婦人之友)』 등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시카와는 가정생활을 담당하는 부인, 즉 가사와 육아에 고민하는 주부가 읽는 잡지라는 점에서 『主婦之友』라는 명칭으로 도시화와 함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의 여성지를 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지면구성을 살펴봐도, 40-50%가 가사와 육아에 관한 실용기사, 20-30%가 독자기고 휴먼 다큐멘터리, 10-20%가 주부의 역할, 여성의 삶, 10%가 문화, 미용, 패션 등으로 이루어져⁷⁾ 중류계층의 도시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주제를 기사화하면서 기존 잡지와 차별성을 중시하여 중류 가정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다이쇼(大正) 6년-7년 『主婦之友』에 수록된 복식과 미용관련 기사⁸⁾

大 正 6 年			
3월	主婦らしきお化粧法	8월	手輕に出来る女袴の色場と染替の仕方 寝冷え知らず兼用の愛らしい子供服の仕 立方 新工夫した涼しい丸髷と束髪の結方

5) 1917.2.14. : 120페이지, 정가 15전, 발행부수는 1만부

발행자 : 이시카와 다케미(石村武美)는 기존 잡지와 차별성을 중요시하여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을 대신하여 ‘가정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를 구상하였고, 그에 따라 타이틀을 『主婦之友』로 결정했다.

6) 『主婦之友』를 창간한 이시카와 다케미(石川武美)는 잡지의 발간목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主婦之友』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의론을 하지 않는다. 독자와 함께 생활의 지혜를 닦고 독자에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고, 독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즐거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浜崎廣(2004) 『女性誌の原流』 ニュース社, p.99)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부인, 즉 주부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지혜를 드리고자 하여 『主婦之友』를 창간했다. 가정의 행복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바라는 것이 그 출판이념이다.”(石川文化事業財團お茶の水圖書館編 『主婦之友大正期總目次』 石川文化事業財, p.7

7) 浜崎廣(2004) 『女性誌の原流』 ニュース社, p.99

8) 石川文化事業財團お茶の水圖書館編 『主婦之友大正期總目次』 石川文化事業財, pp.14-67 참고하여 정리.

4월	衿姿にふさはしい束髪の結び方 世界で一番お化粧のまづい日本の婦人	9월	廢物で出来る流行女帶の絞り染 便利で經濟的な子供運動服の作法 <칼럼> お千代さんの結髪ひ振
5월	着た恰好の良い單衣物の仕立て方 美しくて經濟的な襦袢の袖口の新工夫 曲毛と縮れ毛は斯うすれば直る	10월	流行後れ着物を新しくする工夫 新しい流行着を經濟的に買う工夫 廢物の浴衣で優美な絞り染の夜其 子供着を恰好よく仕立てる秘訣 美容理裝問答
6월	上品で収益の多い刺繡の内職 誰にも出来る浴衣の絞り染 廢物の小布で出来る可愛らしい巾着	11월	家庭で出来る絞り染の袖無羽織 今年はどんなショールが流行か 評判になつ子供着物とエプロン
7월	上品で収益の多い内職 經驗(특집) 愛らしくて經濟的な子供服の仕立て方 誰にも出来る廢物利用の絞り染 <특집> 廢物利用一白種	12월	<화보> 女帶の結び方 新案の婦人仕事着 絞染の風呂敷
大 正 7 年			
1월	<화보>絞染の子供マント 美人となる研究 新案の可愛らしい絞染の子供マント 上品な新年の髪形 美容理裝問答 新春の流行着はどんなものか 男の洋装に就て主婦の心得置くべき事 今年流行の履物	6월	<화보>輕便な婦人仕事着 抜毛の要人療法と美髪になる方法 家庭で出来た絞染の浴衣地 廢物ネクタイで新式ネクタイを作る法 四十錢で出来る子供のハイカラ夏帽子 家庭洗濯法 即席捺染で出来た廢物利用の女帶 美容理裝問答
2월	流行半コートの縫ひ方と秘訣 家庭絞染の改良形ちやん	7월	家庭洗濯法 廢物で美事に出来た絞染の子供浴衣 經濟に出来る子供用の夏洋服 美容理裝問答
3월	廢物利用で出来た絞染の子供衿	8월	汗の多い人の化粧の仕方 水遊着兼用となる寢冷しらず 薄物丸帶くるみ縫方 毛織物及び襦子の洗方と汗の汚點抜き法 美容理裝問答
4월	手輕に出来る春向女帶の絞染法 可愛らしい新型エプロン 婚禮の時に結ぶ髪形 新流行の花見衣 美容理裝問答	9월	手際よく出来るシミ抜き法 古メリンスを新しい絞染に利用する法 廢物帽子利用法 美容理裝問答
5월	<화보> 廢物利用の品々美容理裝問答	10월	赤毛はどうしたら黒くなるか 廢物利用に必要な色抜きと染色法 嫁入に必要な箇所用單の縫方 美容理裝問答

특히 복식과 미용에 관한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는 다이쇼(大正) 6년·7년 『主婦之友』에 수록된 복식과 미용관련 기사이다.

어느 시대나 잡지는 유행에 관한 시대인들의 시각과 판단, 평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잡지는 도시의 주부들에게 가정을 넘어선 보다 폭넓은 세계와의 소통 통로가 되었다. 『主婦之友』은 대상이 중하층 여성까지를 포함한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이전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계몽적 기사보다는 신제 가사와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의 『신여성』이나 『별건곤』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잡지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서양주부의 생활과 서양문물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의식주와 가족 건강, 자녀교육에 관한 기사들이었다. 그 중 복식관련 기사는 해마다 조금씩 비중이 높아져 서양문물 중에서 복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主婦之友』에서 서양 복식관련 기사가 증가 추세를 보임과 함께 「유행」에 관한 기사도 1920년을 계기로 급증하여 거의 매호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소비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소비생활에서 유행이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등장하고 있었다는 당시 상황에 따른 현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근대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고, 서양문화의 흡수에 따른 변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유행을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폭넓게 담아내는 장으로 잡지라는 매체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언론 매체 기사에 관한 분석은 당대 발행된 잡지를 통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드러난 평가와 수용 인식의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시대적 상황에 근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복식의 범위는 전통복과 양복을 대상으로 한다. 서양문물의 도입 후 전통복과 양복이 공존했고 각각 독립적인 유행을 형성하거나 혼용되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 신여성의 복식에서 나타나는 유행의 범위는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主婦之友』에 나타난 여성인식

3.1 주부에 대한 인식

일본에서 주부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10년대 이후이다.

『主婦之友』의 창간자인 이시가와(石川)는 「주부는 가정을 지지하는 두 개의 기둥, 주인에

대등한 용어」라고 하였고, 「주부(主婦)」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부인(婦人)」의 부(婦)는 여자(女)와 비(帶)의 합성어로 가정에서 청소를 하는 여자라는 의미이다. 부인이라는 단어는 봉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주부에는 다이쇼테모크라시의 기운이 남아 있다. 결국 부인에서 주부로 여성의 지위가 승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主婦之友』는 주부라는 단어가 정착되지 않았던 시대에 「청소에서 취사, 육아까지 무엇이든 해야하는 가정의 여성들을 위해」라는 것을 창간목표로 하여, 발행당시 1만부였던 것이 3년째 되는 해에는 십 수 만부에 이르는 인기 잡지가 되었다. 다양한 실용정보를 게재하여, 잡지를 쉽게 접하지 못했던 주부를 타겟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부라는 조어(造語)가 탄생되었던 다이쇼 전후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문화가 생겼던 시기였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여성들의 성적인 가치가 올라가 유행의 선단에 있는 남성들은 인텔리 여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진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부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도 이와 같은 흐름 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유행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서민여성들도 『主婦之友』라는 유행잡지나 라디오 등을 통해 서구식 근대적인 여성상으로 서서히 변화되어 갔을 것이라고 본다.

1차 대전 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부가 된 여성들에게 근대적인 도시생활은 전통적 생활관습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도시의 봉급생활자를 중심으로 하는 핵가족 제도 아래 ‘주부’와 ‘직업부인’을 분류하게 되었다.⁹⁾ 젊은 아내가 가사를 책임지게 되면서 가사에 대한 새로운 모델과 지식이 필요했고, 1920년대 일본의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문화적 생활의 바탕에는 서구 모던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근대에 와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의 역할로서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주부의 역할이 형성되었고, 여성잡지는 이러한 주부의 역할의 지침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여성 잡지는 교양을 중심으로 하는 『婦人公論』, 실용을 중심으로 하는 『主婦之友』와 같은 2가지의 조류가 있었다. 남편은 직업노동, 부인은 가사노동이라는 근대적인 분업이 고정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主婦之友』는 당시 여성들의 가정생활의 지침서가 되었으리라 본다. 주부가 생활을 효율적으로 꾸려가기 위해 시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가계부이고, 일본에서 가계부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 『婦人之友』의 창간자인 하니모토코(羽仁もと子)였다.¹⁰⁾

<표 1>은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主婦之友』의 표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를 통해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1920년대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9) 김영숙(2010) 「일본 근대 소비자의 탄생, 셀러리맨 가정의 생활과 교양」 『이화사학연구』41집, p.34
10) 『主婦之友』의 창간자인 이시카와 다케미는 하니모토코의 남편인 하니오시카즈(羽仁吉一)의 지인으로 『主婦之友』의 별책부록으로 가계부를 제공해 가계부 사용을 더욱 대중화시켰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착용한 현모양처와 같은 주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직업을 가진 직업부인보다는 현명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주부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미가쿠시와 웨이브의 헤어스타일, 백분화장과 붉은 입술의 여성의 화장과 표정을 통해 서구식 근대여성으로의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이쇼기 주부지우에는 검소한 생활이 강조되어 가정 밖에서 활동하는 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기혼여성의 단독사진은 「일본제일의 미인」인 九條武子婦人¹¹⁾을 시작으로 「우아한 취미」의 실업가부인¹²⁾, 「후쿠오카 사교계의 여왕」인 부인¹³⁾이라는 사진 제목을 통해서 보더라도 당시에는 이름다움, 취미나 높은 교양이 여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잡지의 주제나 이미지를 결정하는 키워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1930년대 이후의 표지에서는 서구화된 외모 뿐 만 아니라 착용하고 있는 의복과 여성들의 표정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40년대는 전시 여성의 모성을 강조하는 표지화나, 노동력으로서 여성을 홍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직접 여성들을 징용하지는 않지만 남성들을 대신하여 공장에서 밝고 즐겁게 일하는 근대의 여성들을 그려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 2> 『主婦之友』표지를 통해 본 근대 여성 인식의 변화

1920년대				
				
大正10年3月	大正10年7月	大正10年11月	大正11年5月	大正13年7月

11) 『主婦之友』 大正9年9月

12) 『主婦之友』 大正9年4月

13) 『主婦之友』 大正12年2月

1930년대				
				
昭和4年2月	昭和5年10月	昭和6年8月	昭和8年2月	昭11年7月
1940년대				
				
昭115年4月	昭116年6月	昭117年12月	昭118年5月	昭119年9月

3.2 직업부인에 대한 인식

도시문화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신계층으로 주부와 대별되는 개념인 직업부인이 있다. 직업부인은 직업을 가진 도시 여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여성보다는 모던걸에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다이쇼기(大正期) 모던걸은 여차장, 여사무원, 여성교환수, 여점원 그리고 카페 여급에 이르기까지 대도시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고, 거리에는 양장을 입은 여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당시 여성의 직장이 확대된 것은 1차 대전 전후로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쇼와 초기의 불황 속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의 여성 노동력에 눈을 돌린 결과였다.

여성 교환수는 1901년에 남성 교환수제가 폐지되자 급격히 증가하여 곧 3천 명이 넘었다. 일본은행의 여자 직원도 1910년에는 314명에 달했고, 철도청에도 2,440명의 여성이 근무했다. 다이쇼 이래 이러한 움직임은 더 확대되어갔다. 지진 후 마루노우치에 있는 빌딩 사무실에서 근무한 상사원 4500명 중 여사무원이 700명에 달했고, 주변의 빌딩을 더하면 1000명은 훨씬

넘는 여성들이 마루노우치 일대에서 일했다. 여성들이 소학교 교사나 사무원, 전화교환수 등은 물론 차장, 점원, 타이피스트, 미용사, 아나운서, 모델, 보험판매원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도시에서 극히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¹⁴⁾

4. 『主婦之友』에 나타난 복식

4.1 의복

4.1.1 의복에 관한 기사

주부지우사(主婦之友社)가 발행한 『대정총목차검색(大正總目次檢索)』에서 기사의 중복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다이쇼시대 『主婦之友』의 의복에 관한 기사는 전체의 6.9% 정도였다. 양재(洋裁)에 대해서는 부인복(29), 신사복(7) 아동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양복에 관한 기사도 부인복(50), 신사복(13), 아동복(118)로 아동복이 많았다. 화복(和服)은 부인복(70), 신사복(4), 아동복(12), 화복재단(和服裁斷)은 부인복(28), 신사복(6), 아동복(15)로 화복과 화복재단은 부인복의 비율이 많았다. 다이쇼 전체를 보았을 때, 아동복이 여성잡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양장의 주요 대상이고, 부인복은 많지 않은 것 같다.

『主婦之友』의 화복, 양복, 수예(手藝) 관련 기사의 연간 총계에 대한 비율을 조사했던 다이쇼6년~쇼와10년의 小林은 다이쇼15년부터 쇼와7년까지 양복 관련 기사가 3%를 넘어, 가장 많은 시기였다. 화복 관련 기사는 일관되게 1~2%였고, 수예관련 기사는 쇼와2년~5년이 상당히 많았다. 다이쇼12년 경까지 양복은 아동복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이후 증가해 다이쇼14년에는 양복 관련 항목 중 부인복이 27%를 차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小林, 2002)

쇼와5·10·15년의 1·4·7·10월, 20년의 1·4의 기사를 구체적으로 보면 『主婦之友』 쇼와5년 1월에는 의복 기사로는 아동복 편물 기사(2), 아동용 양복 제작방법(3), 남성화복 속옷 제작방법(1)이지만, 「부인일복제작방법(婦人仕事着の仕立て方)」이라는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4월에는 아동용 양복 제작방법 이외에 반코트와 여학생복 제작방법, 여학생용 편물스웨터 제작방법, 에이프론 제작방법, 화양복겸용(和洋服兼用)의 부인사무복 제작방법이 있다.

14) 安藤更生(1977) 『銀座細見』 中央公論社, p.44

7월에는 아기여름옷 제작방법 이외에 「유카타로 만든 여름용 부인가정복 2종(浴衣地で仕立てた夏の婦人家庭服2種)」 「型紙를 사용하지 않은 여름용 유행부인양장 제작방법(型紙いらずの夏の유행부인양복仕立て方)」라는 기사가 게재되고, 10월에는 부인, 아동모자 제작방법, 부인술 제작방법이 게재되어 있다.

쇼와10년 1월은 수예와 화복 대상 방한용 의복 6종의 제작방법뿐이지만 4월에는 권두호 사진에 「봄 유행화장」 2건에 이어 「봄 유행양장」 2건, 또 여아 에이프론 2종의 제작방법과 「유행형 부인스커트의 간단한 제작방법」이 게재되고, 7월에는 화복의 「流行 薄物女單衣 制作方法」이 별책부록이었다. 10월에는 유행 혼인복과 방문복 밖에 없지만 별책부록으로 모사편물집이 2권 함께 나왔고, 이 중 한 권은 부인과 여학생용, 또 한 권은 아기용이었다.

쇼와15년 1월에는 화복을 개량하는 비결, 「화복과 양장의 오염제거 방법」이라는 기사가 있어 「봄 부인아동복전람회 출품모집」이 게재되어 있다. 부록 7개 중 의복관계는 화복재봉(1), 수예(1), 화복과 수예(1)의 3건이었다.

쇼와기에는 아동용 양장 뿐 만 아니라 부인양복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것, 그러나 부인용은 화복관계의 기사나 부록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들이 새로운 의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에 맞추어, 새로운 의복을 소개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의복을 새로운 스타일로 변형할 수 있는 개량복이라는 이름으로 리폼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남녀겸용의 제작법에 관한 기사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다이쇼 이후 또다시 전시로 다가감에 따라 물자절약이라는 정책에 맞추어 부인잡지의 기사도 그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여성에게 있어 아름다움과 관련한 것 속에서 최대 관심사이며 또한 각양각색의 의복을 입은 여성은 사진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양장을 입은 것은 「소박한 생활」이 강조되어 여성들의 본보기가 되었던 기혼의 황족여성들이 아니라 젊은 여배우들이었다. 여배우들이 입은 부인복은 「경제적인 봄 양장 유행형태」 「경제적으로 선정한 겨울 유행양장」¹⁵⁾ 등의 제목으로 나타나, 경제적이라는 말과 유행이라는 말이 강조되었음이 눈에 띈다. 이것은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유행의 흐름에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당시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이쇼10년 9월호 『主婦之友』에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졸업에 이르기까지 미국생활을 하고, 양복 생활을 해온 齊藤うた子の 에피소드가 게재되어 있다.¹⁶⁾ 齊藤うた子の 글에 의하면

15) 『主婦之友』 大正15年1月

16) “東京の平安女學校へ教鞭を執るやうにと勤められました折りした。あんな定だな所のことでありますから、洋服の目に立つとは静まててをりますけれども、洋服でよろしいからば行きますと返事きたもです。それでは改良服位にしてはと申されましたけれど、とうとう洋服で押して래ました。一たい改良服と申しますものは、不徹底なものでございます。”(『主婦之友』 大正10年9月)

당시 양복의 수용을 용인하려하지 않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당시 양복의 가격과 다이쇼9년 소학교 교원의 초임이 40~55円¹⁷⁾이었던 것과 비교한 결과 싸다고는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량복이 아닌 양복을 권유하고 있다.

4.1.2 직업부인의 복식

다이쇼 후기부터 부인잡지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특집을 기사로 게재하여, 직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이쇼12년 3월호의 『婦女界』¹⁸⁾에서는 「現代婦人職業案内」를 테마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사, 보모, 여의, 치과의사, 부인기자, 미용사, 미발사(美髮師), 부인탐정, 여우, 타이피스트, 여점원, 간호부, 산파, 파출부, 여자 재봉사의 직업을 소개하고, 「부인 직업을 위한 학교안내」라고 하여 각 직업을 위한 대학, 사범학교, 각종학교 등을 게재하고 있다.

다이쇼 말기 여성의 직업 중 양복이 착용되었던 것은 간호부, 다이쇼5년부터 여급의 에이프론, 다이쇼13년 버스차장의 제복¹⁹⁾, 14년의 전차(市電車)차장 제복, 교사의 제복, 사무원의 제복 등이 있었다.



<그림 1> 大正13年 バス車掌 制服



<그림 2> 大正5年 看護婦 制服

다이쇼 13년 10월 『主婦之友』에서는 「개량된 젊은 여점원의 사무복」이라는 제목으로 「미즈코시(三越)와 시로키야(白木屋)에서 합의했듯이 식당의 웨이트리스 제복을 양장으로 했다」고

17) 文教政策研究會(1996) 「日本の物價と風俗130年のうつり変わり」 文教政策研究會

18) 『婦女界』 大正12年3월

19) 遠藤武・石山彰(1980) 『寫眞にみる日本洋裝史』 文化出版局

쓰고 있다. 「미즈코시의 웨이트리스 제복은 옅은 남색(水色)의 마로 만든 원피스로 폭도 길어도 소녀답고 짧은 에이프런을 걸치고, 흰색 양말에 버튼이 있는 단화, 머리에는 작고 하얀 캡을 쓴 모습은 경쾌하고 아름답게 보인다.」²⁰⁾ 또한, 14, 15세부터 17세까지의 50인의 여성들 중 한명이 착용했을 때의 감상을 기술하여 화복보다 활동적인 양복으로 바꾸어 입었을 때의 호감과 함께 가벼운 옷차림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했다.²¹⁾

미즈코시의 유니폼은 한 벌에 10엔 이내였고, 당시 영국제 포지로 만든 주문복이 한 벌 30엔(다이쇼10년), 10kg 백미가 3엔4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²²⁾ 유니폼은 다소 고가였다고 여겨지고, 이 고가의 양복을 입을 수 있는 즐거움이 소녀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러나 아직 다이쇼 말기는 화복 위에 하오리를 입은 직업복도 많이 볼 수 있다.

<표 3> 양복착용 비율(大正14年, %)

女性		男性		女學生		男學生		女兒		男兒	
洋	和	洋	和	洋	和	洋	和	洋	和	洋	和
1	99	67	33	29	71	80	20	61	39	74	26

今和次郎・吉田讓吉『モデルノロヂオ』²³⁾

<표 3>는 今和次郎・吉田讓吉『モデルノロヂオ』를 양복 착용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이쇼14년 5월 京橋부터 新橋 사이의 여성, 남성, 여학생, 남학생의 양복착용조사의 결과이다. 여성의 양복 착용지는 아주 적은 비율로 나타나, 당시 여성의 양복착용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여학생의 경우 29%로 일반여성보다는 양복착용의 비율이 높지만 이는 교복착용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양복의 착용율이 높은 것은 어린이 의복에서 높게 나타난다. 당시 주부지우를 포함하여 여성잡지에서 다루었던 의복에 관한 기사는 여성의 양복착용에 대한 찬반론칼럼, 양복의 제작방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다이쇼기 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20) “三越の給仕少女の服は水色の麻のワンピースドレスで裾も丈も少女らしく短く共布の小さいエプロンを掛け、白い靴下にボタンかけの短靴、頭に小さい白いキャップを着えた姿は輕快で愛らしく清らかである。”(『主婦之友』大正13年10月)

21) “身輕に往復できてうれしい。涼しいことといったらはじめて着たときは、何だか腕のあたりなど、何にもなさすぎて變な気持ちでした。働きよくなったということは、大きな幸福”(『主婦之友』大正13年10月)

22) 文教政策研究會(1996) 「日本の物價と風俗130年のうつり變わり」 文教政策研究會

23) 今和次郎・吉田讓吉(1930) 『モデルノロヂオ』 小林泰輔(藤田恵子) 「明治以降の衣服製作教育における女子上半身用原型製圖法の變遷」 文化女子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p.109, 재인용)

사회적 분위에 의해 가족을 위해 양복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으며, 비교적 만들기 쉽고, 입히기 쉬운 아동복을 중심으로 잡지의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4.1.3 신여성의 복식

1920년대 신여성의 개념은 대중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단어로 모던 걸이 사용되었다. 모던걸은 기타자와 히데카즈가 1924년 『女性』에서 처음 언급하였고, 1926년 대중화되었다. 기타자와는 신여성이 부인해방과 여권신장의 역사와 연관성이 있다면 모던 걸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활동 시간의 증가를 배경으로 나타나 이전의 신여성과는 달리 대중적인 경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여성과 모던걸 모두 전통사회에서 현모양처 역할을 을 강요당했던 구여성(舊女性)들과는 다른 여성상으로 등장하였다.²⁴⁾

관동대지진과 시로키야(白木屋)의 화재라는 두 재해로 화복은 기능적이지 않다는 결점이었기 때문에 화재시 화복을 입었던 여성의 피해는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었다. 진재 이후 젊은 부르조아 여성과 마루비루(丸ビル)근무에 상징되었던 직업부인에 의해 단발, 양장, 양푹 화장으로 꾸민 모던걸이 등장하면서 유행했다. 『婦人公論』은 「마루비루(丸ビル) 중심의 문화」 특집을 만들고, 「양장과 단발을 한 모습에 가까운」모던걸을 논하고 있다.²⁵⁾



<그림 3> 대정 여학생



<그림 4> 대정모가

24) 유정이(2007)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복식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25) 『婦人公論』(大正14年 4月 春 特別号)

4.2 화장과 헤어스타일

4.2.1 화장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목적은 시대나 사회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메이지시대 문명개화에는 이전의 전통적인 화장이 아니라 서양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 다이쇼시대가 되면 여성이 사회진출을 함에 따라 사회적 요구에 의해 화장을 하는 여성들의 증가하고 백화점 점원, 간호사, 사무원, 전화교환수 등 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화장은 자기만족 뿐 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라는 의식이 되었다.

<표 4> 『主婦之友』 백분과 미안수 관련 화장품 지면 광고

				
主婦之友 (大正15年11月)	主婦之友 (昭和3年3月)	主婦之友 (昭和13年3月)	婦人俱樂部 (昭和5年3月)	婦人俱樂部 (昭和5年1月)
				
婦人俱樂部 (昭和5年4月)	主婦之友 (昭和6年4月)	主婦之友 (昭和6年5月)	主婦之友 (昭和6年7月)	主婦之友 (昭和7年1月)

<표 4>는 『主婦之友』에 나타난 화장품 지면 광고이다. 화장품 광고는 대부분 미안수나 백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등장하는 모델들도 부분적인 색조화장보다는 얼굴표면이 희고 투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이쇼초기는 부담스러운 색조화장 보다는 스킨케어나 피부표면의

메이크업과 같은 기초화장에 관심을 두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서구의 화려한 메이크업은 다이쇼 말기 일부계층의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1922년의 『主婦之友』에는 아이새도가 유행하여 여성의 화장법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당시의 잡지에 「긴자에 눈가를 파랗게 바림을 한 여자가 등장한다. 전대미문이다。」라고 인용되었던 만큼 무척 드문 일이었다. 이처럼 다이쇼시대 여성들은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에 의해 화장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새로운 화장법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머리형도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이 요구되었다.

4.2.2 머리스타일



<그림 5> 다이쇼기 『主婦之友』에 나타난 다양한 머리스타일

메이지시대부터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그때까지의 전통적인 머리형에서 속발(束髪)이라는 일본형 머리가 나오게 되어 보다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머리형이 유행하였지만 아직 전통적인 일본형의 머리스타일을 많이 했다. 그러나 메이지시대 말기부터 다이쇼시대에 걸쳐 사회에 진출했던 여성의 요구에 맞추어 전통적인 머리형 보다 쉽고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속발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해 전통적인 일본형 머리를 하는 여성들은 점점 감소했다. 1920년대 등장했던 여우곡(女優髷)은 여성의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했던 극장의 여배우들이 했던 것으로 볼륨을 내기 위한 충전물을 넣지 않고 귀밑머리를 붙이는 기름도 사용하지 않는 산뜻한 머리형이었다. 보기에 화려함은 없지만 가볍고 손쉬운 간단한 기능적인 스타일로서 소개되었다. 인기 있는 머리형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정해졌던 머리형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머리형으로 하려하는 신여성의 의지를 나타낸 머리형이었다.

5. 결 론

『主婦之友』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행되었던 본격적인 여성잡지로 독자의 중심이 중류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으므로 당시 여성 의생활의 변천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이쇼기 여성지에 나타난 일본 신여성 복식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主婦之友』의 간행배경은 를 중심으로 하여 간행배경을 통해 성격변화에 대해서 고찰한 결과, 『主婦之友』는 중류계층의 도시여성을 대상을 하여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주제를 기사화하면서 기존 잡지와 차별성을 중시하여 중류 가정의 주부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였다. 대중적이면서, 근대적 여성주체 형성을 잘 보여주는 잡지로서 가장 큰 판매부수를 자랑하였으며, 일반여성을 독자층으로 한 종합여성지의 성격을 가진 잡지였다. 이전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계몽적 기사보다는 신제 가사와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잡지에 나타난 표지 그림을 통해 『主婦之友』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결과, 1920년대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착용한 현모양처와 같은 주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직업을 가진 직업부인보다는 현명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주부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미미가쿠시와 웨이브의 헤어스타일, 백분화장과 붉은 입술의 여성의 화장과 표정을 통해 서구식 근대 여성으로의 변화가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이쇼기 『主婦之友』에는 검소한 생활이 강조되어 가정 밖에서의 활동사진은 거의 없었지만 기혼여성의 단독사진은 「일본제일의 미인」인 九條武子婦人을 시작으로 「우아한 취미」의 실업가부인²⁶⁾, 「후쿠오카 사교계의 여왕」인 부인이라는 사진 제목을 통해서 보더라도 당시에는 아름다움, 취미나 높은 교양이 여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잡지의 주제나 이미지를 결정하는 키워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시 잡지에 나타난 신여성의 복식을 살펴본 결과, 양장의 대중화에 있어 먼저 등장한 것은 직업부인들의 유니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간호사, 버스차장, 웨이트리스의 제복은 양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고, 고가의 양장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직업부인들은 신여성 혹은 모던걸이라는 이름으로 양장의 유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主婦之友』를 포함하여 여성잡지에서 다루었던 의복에 관한 기사는 여성의 양복착

26) 『主婦之友』 大正9年4月

용에 대한 찬반론칼럼, 양복의 제작방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다이쇼기 주부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적 분위에 의해 가족을 위해 양복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으며, 비교적 만들기 쉽고, 입히기 쉬운 아동복을 중심으로 잡지의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김영숙(2010) 「일본 근대 소비자의 탄생, 셀러리맨 가정의 생활과 교양」 『이화사학연구』 41집
 박미애(1994) 「개화기 일본의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이(2007)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복식 비교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현(2003) 「한일근대「신여성」비교 연구 : 여성지『新女子』와『靑踏』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落水惠美子(2005) 「일본 여성잡지로 보는 여성의 표상-젠더와 섹슈얼리티의 戰後 체제」 『미술사논단』 제20호, 한국미술연구소
 石川文化事業財團お茶の水圖書館編『主婦之友大正期總目次』 石川文化事業財
 石田あゆ(2004) 「1931-1945年化粧品廣告にみる女性美の變遷」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5, 일본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學會
 遠藤武・石山彰(1980) 『寫眞にみる日本洋裝史』 文化出版局
 浜崎廣(2004) 『女性誌の原流』 ニュース社
 安藤更生(1977) 『銀座細見』 中央公論社
 文教政策研究會(1996) 「日本の物價と風俗130年のうつり變わり」 文教政策研究會
 今和次郎・吉田讓吉(1930) 『モデルノロヂオ』 小林泰輔
 藤田恵子「明治以降の衣服製作教育における女子上半身用原型製圖法の變遷」 文化女子大學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主婦之友社『主婦之友』 大正15年1月号
 主婦之友社『主婦之友』 大正10年9月号
 主婦之友社『主婦之友』 大正13年10月号
 主婦之友社『主婦之友』 大正9年9月号
 主婦之友社『主婦之友』 大正9年4月号
 主婦之友社『主婦之友』 大正12年2月号
 『婦女界』 大正12年3월
 『婦人公論』 (大正14年 4月 春 特別号)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要旨〉

女性誌를 통해 본 근대 일본 신여성 복식에 관한 연구

- 大正期 『主婦之友』를 중심으로 -

『主婦之友』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행되었던 본격적인 여성잡지로 독자의 중심이 중류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으므로 당시 여성 의생활의 변천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 일본 신여성의 복식을 고찰한 결과, 다이쇼기 『主婦之友』는 다른 시대에 비해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전통의 상인 기모노를 착용한 현모양처와 같은 주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직업을 가진 직업부인보다는 현명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주부가 이상적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도시문화의 발달과 함께 나타난 신계층으로 주부와 대별되는 개념인 직업부인의 등장은 신여성을 모던걸로 이행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신여성과 모던걸 모두 전통사회에서 현모양처 역할만을 강요당했던 구여성(舊女性)들과는 다른 여성상으로 등장했고, 이들은 복식은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유행의 흐름에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당시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A study of Japan New Women's Fashoin Reflected on Farnale Magazine

- Housewife's Friend(Shuhuno Tomo) in the Taishō -

"Friend of Housewives" (主婦之友) was a relatively long-time published women's magazine widely read by many of educated middle-class Japanese women as its core readers during the Taisho period (大正期: July 30, 1912-December 25, 1926), and its contents (and editorial stance as a whole) tend to reflect, in many respects, the then transformation in their clothing style. The analysis of the clothing style of modern Japanese women shown in women's magazines (女性誌) of this kind shows that "Friend of Housewives" in the Taisho period was, particularly, keen on depicting ideal image of woman as that of a good-wife-and-wise-mother figure wearing traditional Kimono, broadly in line with that period's mainstream current of capitalizing on traditional image (and role) of women; what it valued as ideal image of woman related more to wise housewives taking care of households than to career women (職業婦人). However, the emergence of career women as a "new class" in the then Japanese society as urban culture started developing, whose concept/image tended to be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raditional housewives, paved the way for transforming this new class of women (i.e. career women) or *the new women* into becoming represented as *the modern girl*. Both new women and modern girls started emerging as the new role model of a woman different from *the old women* (舊女性) who were forced to play a role as a good-wife-and-wise-mother housewife in traditional patriarchal society. And the former's overall clothing style tends to be reflective of then women's values about clothes that emphasize their frugal lifestyles and, at the same time, their determination to catch up with this new trend agilely.